

Formosa, 중국 PVC 프로젝트 허가

타이완, 2001년 6월 신청 11개월만에 공식허가 ... 3불통정책 완화

타이완 경제부는 5월20일 Formosa 그룹의 중국 PVC 플랜트 건설을 포함해 모두 1억6657만달러 상당의 중국투자를 허가했다.

타이완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4월 중국사업 신청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첫 회의를 열고 Formosa 그룹이 4300만달러 상당을 투자해 중국 동북부 저장성(浙江省) Ningbo(寧波)에 건설하는 PVC 프로젝트를 허가했다.

Formosa는 이미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데 2001년 6월 PVC 플랜트 건설을 신청했지만 그 동안 결정이 유보돼 왔다.

이에 따라 왕영칭 Formosa 그룹 회장은 최근 타이완이 1949년 이후 고수해온 이른바 3불통(三不通- 직접적인 通航·通郵·通商 금지) 정책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타이완 정부가 3불통 정책을 해제하지 않으면 타이완의 중국 투자자(상품 공급자)들이 선적비용 등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홍콩 등지로 사업기반을 이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수이벤(陳水扁) 타이완 총통은 임기에 중국과의 직접접촉을 허용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타이완 행정부는 중국이 여전히 [동등한 협상권]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타이완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훈하이(鴻海)정밀공업의 베이징 부품공장에 대한 2380만달러의 자본금 증액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중국 장수성 소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청정실용 장비 및 부품 공장 건설을 위한 3380만달러 투자계획도 허가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 투자한 타이완기업은 315곳으로, 이 가운데 훈하이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이완은 정부가 2002년 4월 중국투자 완화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단일 사업으로 2000만달러 이상의 사업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됐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23 >